



개원 2주년 축하

안녕하십니까?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박병권입니다.

오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의 개원 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오르게 되니 지난 시절 KIST와 통합과 발전과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저는 공공기술연구회 이후 2년만에 그 동안의 난관을 극복하고 연구회 산하기관 평가에서 당당히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모이신 KIST와 모든 임직원분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였다고 생각하며, 그 중에서도 양 기관의 통합을 무리 없이 재봉하신 조영화 원장님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급변의 우수기관으로의 평가는 지금 이대로 만족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과거 제조기반의 산업 구조에서 첨단 지식경보가 그 중심에 오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정보를 연구하고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 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우수 평가의 관점은 시대의 요구를 냉철히 파악하시어 시대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더욱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KIST로 계속해서 변모해 나가 달라는 부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은 근래의 몇 년보다 더욱 급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 이후 차세대 인터넷환경의 도래를 예견하며 정부는 국가 GRI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GRID 체계의 응용인프라인 e-R&D 체계의 구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변화를 추진하는 새로운 환경변화가 논의됨과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시대변화를 이끌 수 있는 키워드인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인프라는 아니지만 이토록 지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그 변화를 수용하기에 너무나 힘들어 졌다는 말입니다. 바이오로 유동적인 사고와 새로운 환경을 선도한다는 마음가짐 없이는 생존해 나갈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시대인수목 각 연구소는 연구소의 비전제시의 그에 해당하는 발전 전략 수립에 더욱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시대변화는 잠시 현안을 파는 이들을 결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

는 미래이지만 그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없이는 세계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KISTI 임직원 여러분!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의 인프라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부구조입니다. 이러한 하부구조가 든든해야 우리나라가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이러한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여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사명감을 갖으십시오. 그리고 책임감도 갖으십시오. 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부심도 갖으십시오. 이러한 마음들은 여러분이 해당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부디 지식정보인프라 구축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프론티어로서 프로의식을 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에 도전해주시십시오. 우리 공공기술연구회도 산하 연구원의 첨단화 선진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렇듯 영광스러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개원 2주년 기념식이 있기까지 견마의 노고조차도 아끼지 않고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신 조영화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 그리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안녕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5. 23.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박병권

